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踏雪野中 不須胡亂行’ 눈발 속을 가더라도 함부로 걷지 마라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오늘 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될지니
이는 서산대사 휴정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선시(禪詩)로 백범 김구의 좌우명이었다. 해방정국의 와중에서 백범이 어린 백기완한테 주었다는 명함판 사진의 여백에도 백범의 친필로 이 시가 쓰여져 있었다.

지나가던 개도 다 웃을 일이다. 우선 세계적으로 그 악명이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천투구의 세종시 수정안 찬반토론을 하면서 웬 난데없는 백범의 좌우명이란 말인가. ‘개 발에 편자’라더니, 꼭 그 꼴을 보는 것만 같았다.
분별없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세

세종대왕에게 부끄러운 세종시

중시 문제는 처음부터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 시작한 것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선거 때 ‘재미 좀 보자’고 눈발 속을 함부로 걷지만 앉았더라도 세종시 문제는 애초에 불가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판정이 나왔을 때 노 전대통령이 굳이 오기만 부리지만 앉았어도 그중에서 멈출 수도 있었다. 그때, 여야간에 누가 나서서 ‘이건 길이 아니다’라고 외쳤어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시를 인용했던 그 의원은 물론 야당 사

람들이 자신들의 사부(師傅)로 떠받들고 있는 김대중 전대통령도 일찍이 행정수요론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25km의 거리에 있어, 정부와 국가의 지도적 인사들이 끊임 없이 긴장하며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라 했다(김대중의 ‘육중사신’, 1977년 11월 29일자). 세종시에 행정부가 이전해 있을 때 전란한 사태가 발생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김 전대통령의 지적은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공약으

로 내세울 수 있다는 포퓰리즘에, 그것이 결코 길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표를 빼앗길까봐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가 결합해 마침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선거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겨야 하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진기록을 세우게 한 것이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2007년 대선이 첫번째 기회였다. 이명박 또한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져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작년 9월, 정운찬 총리후보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왔을

때가 마지막 기회였다. 대통령이 총리 뒤에 숨을 일이 아니라 대신 때 자신의 처신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물론 충청권에게도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노라고 약속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고작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대안 밖에 제시한 것이 없고, 그나마 세종시를 명품 선진도시로 만들기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을 한 흔적은 찾을 길이 없다. 거기다 집권당 안의 의견 통일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9개월 동안 국회를 설득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없었고,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도 설득해 내지 못했다. 그레놓고 본회의 표결로 역사에 기록을 남기자는 것은 또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그 출구전략이란 것도 어처구니없었다.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마지막 호소마저도 없이 너무 쉽게 접어 버리고 단 것이다. 정운찬 총리에 대한 토사구팽에 앞서,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세종대왕에게 면목이 없게 되었고, ‘세종’이라는 이름 앞에 오직 부끄러움 뿐이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환식



지난 23일 새벽 3시30분 벌어진 우리 나라와 나이지리아의 2010 남아공 월드컵 B조 예선 3차전 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접전 끝에 2-2 무승부로 비기면서 태극전사들이 월드컵 원정 사상 첫 16강에 진출했다. 밥집을 설치하며 응원하던 시·도민들은 열렬히 환호했다.
태극전사들의 멋진 활약은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토크를 안겨줬다. 구직난·적자·영양 부진·어려운 가정 살림

금) 외환위기는 국가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을 당시, 박세리 선수가 악전고투 끝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우리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결국, IMF 조기졸업을 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 장기 불황으로 경기

월드컵이 남긴 ‘메시지’

등 모든 것을 잊게 했다. 8강행 티켓을 놓고 우루과이와 일전(一戰)을 벌인 26일 밤 11시,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나온 시·도민들은 태극전사들을 또다시 응원했다.
전·후반 90분간 혈전을 벌인 결과, 스페인은 1-2 패배, 8강행 좌절이었다. 하지만, 시·도민들은 90분간 포기하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빈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붉은악마들은 “팬창이! 팬창이!”를 연발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다.
언론·인터넷 등 정보를 접하는 창구마다 칭찬 일색이었다. 안타까워 없었다. 우리는 태극전사들의 플레이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와 신념, 희망’을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엮어주고 뜨겁게 하며 에너지를 응집시켜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한마음을 한뜻으로 화합, 위기 극복을 해왔다.
지난 1997년 우리나라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 통화 기

금) 외환위기는 국가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을 당시, 박세리 선수가 악전고투 끝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우리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결국, IMF 조기졸업을 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 장기 불황으로 경기

재래시장 활성화, 지저분한 화장실 개선부터

최근 아이를 데리고 재래시장을 구경시켜주기 위해 길을 나섰다. 이것저것 재래시장을 돌아보면 중 아기가 다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해 공중화장실을 찾았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바닥에 어지럽게 비벼진 담배꽂초, 화장지, 가래침에 닿았을 손을 정도로 더러워 그만 어찌할까 망설이다 문을 닫고야 말았다.
다시 옆 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고 있었고 화장실 문이 고장 난채여서 그 여성분도 어찌할 도리없이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고 나도 졸지에 크나큰 결례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오죽 농촌의 5일 장을 살리자는 노력이 많다. 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상인들도 신용카드도 받으며 이런저런 개선안도 많이 나오고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안다.
기왕지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화장실 같은 부분도 깔끔하게 단장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고 또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 전국 농촌의 5일 장의 화장실부터 손꼽으면 좋겠다.
▲이준영·광주시 서구 마북동

기고

나현주



준비된 배낭여행은 자유롭게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배낭여행의 참다운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해외여행 및 배낭여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배낭여행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첫째는 남이 갔으니 나도 한번은 가야겠다는 순간의 결정으로 여행사에서 추천하는 일정에 맞춰 떠나는 여행. 들

시간을 두고 스스로 준비하자. 최소한 2~3개월 자신의 관심분야와 관계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후 숙소와 항공권 등 각종 패스를 준비한다.
둘째 여행하면서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유익한 여행정보 얻고 현지의 문화와 경제를 위한 메모 또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여행을 준비하는 만큼 여행의 마무리를 잘 정리함으로써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친구

나만의 ‘배낭여행’을 떠나자

째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친 후 떠나는 배낭여행을 말한다. 청소년에게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사전의 치밀한 준비를 하는 여행은 흔하디 흔한 눈도장 여행과는 그의 여행결과와 산물이 다를 것이다. 물론 여행사마다 다양한 배낭여행 상품을 마련해 두고,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 준비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여행만큼 자신을 개발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여행사에서 여행 수익에만 집착하여 배낭여행의 본질인 “자유 배낭여행”이라는 목적을 망각하고 여행객들에게 획일화된 배낭여행문화를 심어주고 있기도 한다.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배낭여행을 원한다면 최소한 자기의 관심분야와 목적의식을 지니고 가야 할 것이다.
스스로 배워가는 배낭여행을 계획하는 청소년들에게 여행의 선배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간단하게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배낭여행 테마를 정해 충분한

를 사귀는 데는 유스호스텔만큼 좋은 장소도 드물 것이다.
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들이 여행을 통해 꿈과 이상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세기 초 독일에서 개발된 보급형 유스호스텔은 여행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친구를 사귀면서 진정한 국제우호를 실현할 수 있는 ‘젊음의 숙소’를 뜻한다.
유스호스텔은 지역과 특성에 맞게 해양 프로그램(요트, 카누, 윈드서핑)이나 나뭇등반, 스키, 승마, 트레킹 등을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즘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행을 좋아하는 대학생, 일반인,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유스호스텔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행에 있어서 모든 생각과 경험이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면 어찌 나를 위한 진정한 여행이겠는가. 여행의 기억과 추억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자만의 것이다.
<한국유스호스텔 광주·전남연맹 간사>

터널진입 차단시설물, 도로 진입로에 설치해야

며칠 전 항행 쪽에서 광주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진입하기 직전 터널진입차단 시설물을 보았다. 굴을 막 통과한 후 반대쪽 차선을 보니 여기서도 역시 사각 철재로 차량 진입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 아마 이 시설물은 짐을 높이 실은 차량이나 차체가 높은 차량이 진입했다가 터널 상단에 부딪혀 파괴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 시설물의 위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터널의 높이보다 높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바로 이런 시설물을 갑자기 만나

위부분이 걸렸다고 하자. 이 차량은 터널에 진입하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할 판인데 분리를까지 시설된 이 길에서 어떻게 되돌아가 수 있을지 의문이 되었다.
어느 도로나 진입로와 나가는 도로가 있다. 이런 시설물은 진입로와 나가는 도로에 시설하여 사전에 차단한다면 터널 직전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좀 더 생각한다면 ‘높이가 초과한 차량은 000으로 우회하시오.’라는 표시를 해두면 더 좋지 않을까.
▲이도형·광주시 남구 진월동

시설

광주역 KTX 정차 여부 시민여론 따라야

오는 2014년 말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에서 광주역이 제외되고 송정역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KTX 노선에서 광주역의 진입로를 송정역으로 일원화하는 대신 광주역의 기능을 일부 회화하는 대신 광주역의 기능을 일부 회화해 내지 못했다. 그레놓고 본회의 표결로 역사에 기록을 남기자는 것은 또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그 출구전략이란 것도 어처구니없었다.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마지막 호소마저도 없이 너무 쉽게 접어 버리고 단 것이다. 정운찬 총리에 대한 토사구팽에 앞서,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세종대왕에게 면목이 없게 되었고, ‘세종’이라는 이름 앞에 오직 부끄러움 뿐이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축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송정역으로 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해양부는 사전에 광주시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측은 광주역 제외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물론 광주역 이전 및 송정역으로의 통합 문제는 오랫동안 찬반여론이 상존해 논란거리가 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역에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으면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시 불균형과 시민 접근성 저하, 교통혼잡 등의 폐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셔틀 전동차를 운행하는 방안도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역할을 감안할 때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광주시는 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결국 논의시기를 놓쳐 버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가능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복마전’ 지자체 인사 이대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가 갈 때까지 간느낌이다. 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인사는 실종되고 ‘뒷돈 거래’와 정실의 의해 인사가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민선 4기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지자체 인사는 ‘복마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 청탁을 대가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전완준 화순군수의 선거참모 2명이 지난 1일 구속됐다. 전주인 광주시 서구청장은 지난해 9월 부하 직원 2명에게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뿐만 아니다. 광주시 광산구청 환경미화원 2명은 환경미화원 채용 알선을 대가로 3명으로부터 여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나주시는 지난 민선 3기와 4기 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임시장의 측근을 비롯해 시청 공무원 자녀 등을 대거 밀실 채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공직사회에선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것 출범한 민선 5기 단체장들의 보복성 인사도 도를 넘고 있다. 물론 유능한 측근들이 단체장을 보좌하고 정책집행을 해야 일관성 있는 책임행정을 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논공행상에 의한 쓰나미급 몰락이 인사가 뒤집어지어서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지자체 인사를 이대론 뒤선 지방자치 뿌리내릴 수 없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돈과 사조식이 공직사회를 압도하고, 대인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복마전·정실인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인 것이다.
공직(公職)은 주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다. 당연히 공직에 대한 인사도 주민의 눈높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공평무사한 인사가 단체장도 살고, 지역도 사는 길이다. 지자체 인사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無等鼓

최근 중국의 ‘경제 국공합작’이 이뤄졌다. 중국과 타이완(臺灣)이 양측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나선 것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1, 2차 국공합작에 견주어 이르는 말이다.
중국 대륙과 타이완의 경제협력 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차이완(차이나+타이완)’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양안(兩岸)의 경제협력 체결로 당장 폭스바겐이 대만에 공장 건설을 검토하는 등 대만이 세계 경제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후 1911년 쑨원(孫文)이 주도한 신해혁명으로 중국은 2000년 동안 지속돼 온 봉건체제를 마감했고,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두 차례의 ‘국공합작’이라는 현대사의 굵직한 발자국을 남겼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과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은 1924년 제국주의와 군벌 타도를 내세우며 1차 국공합작에 합의했다. 그러나 장제스가 1927년 반공 우파 쿠데타를 감행함으로

‘차이완’



서 양측은 결별한다. 이어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손을 잡아 2차 국공합작에 들어간다. 하지만, 1949년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으로 국민당은 대만으로 물러났고 국·공은 다시 분열됐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협력 체결을 제3차 국공합작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다. 1, 2차 국공합작이 정치·군사목적이었다면 3차는 ‘경제 원환’을 위해서다.
중국과 타이완의 경제협력 체결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반도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세철폐 등으로 ‘차이완’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이완에

서서 벌써 한국을 넘어서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남북한 경제협력의 산물인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 여파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서로가 이익이라던 스물엿이 손을 잡는 양안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